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이영자 총재 승리신문 700호 발행 공로자 시상

“700호 발행은 신문사 직원들의 순교자적 희생으로 된 것”

2016년 병신년 새해 첫날 이슬성신절 2부행사에서 승리신문 700호 발행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다. 승리재단 이영자 총재는 승리신문 발행에 큰 기여를 한 김만철(승리재단 신도회 부회장), 박준구(군산재단 장로), 허만옥(청주재단 책임이사), 윤금옥(승리신문 편집부장) 4명에게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주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시상 후 이영자 총재는 “승리신문 700호 발행을 축하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조현 선생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결사항전하다가 순국한 700의병이다. 승리신문의 매호 발행은 김중만 사장 이하 직원들의 순교자적 희생으로 되어온 것”이라고 치하한 후 “전 성도들은 승리신문 700호 발행이라는 저력으로 이긴 구세주의 진리를 전하며, 올해 기필코 승리하자”고 700호 발행 축하의 말씀을 했다.

승리신문은 우리 식구들의 성금으로 제작 발행된다. 보통 월 1만원씩을 신문성금으로 내고 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2만원도 내고, 5만원도 내고, 후원금으로 100만원도 내는 분도



이영자 총재가 박준구 장로에게 시상하고 있다

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 식구 전체가 승리신문 발행의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신문을 만드는 기자들도 공로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많은 공로자 중에서 네 분을 뽑아 상을 드렸다. 첫 번째는 김만철 부회장이자 김만철

부회장의 탈북기가 가장 우리 식구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36회 연재되는 동안 다음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했고, 신문이 나오면 먼저 탈북기부터 읽는 풍경이 펼쳐졌다. 김 부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지만 구세주님과 제단을 위해 서러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고 탈북기를 연재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탈북기와 주님 일대기에 그림을 그려주신 박준구 장로님을 택하였다. 박 장로님은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지만 짧은 시절 잠시 극장 간판을 그린 적이 있는데 구세주의 구원사역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는 생각으로 좋은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었고, 이러한 그림으로 탈북기의 내용이 더욱 알차졌고, 주님 일대기 또한 딱딱한 내용을 부드럽게 해주었다.

세 번째는 허만옥 승사이다. <승리신문> 2007. 11. 15자(509호)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만옥 칼럼이라고 매호 연재

되고 있다. 허 승사는 509호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하였으니 약 200회를 계속 쓴 것이다.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한 두 번은 쓸 수 있으나 계속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한계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공부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 그 한계를 극복하여 좋은 글을 계속 쓰신 것이다.

네 번째는 윤금옥 승사이다. 윤 승사는 언론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언론출판사 승리신문사에서 가장 일이 많은 분이 바로 편집부장이다. 기자들이 쓴 글을 보기 좋고 읽기 쉽게 만드는 일을 한다. 기사와 맞는 그림을 만들고 사진을 집어넣는 일은 정말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것인 편집부장에 대해 공격 또한 심하다. 어쩔 때는 밤을 새워서 편집을 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네 분을 공로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김중만 승리신문사장은 승리신문 사무실 왼쪽 벽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승리신문이 승리재단의 미래를 연다”를 보여주며 “승리신문사 직원들은 모두 승리재단의 미래를 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젊음을 바쳐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승리재단은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다. 이대로 가면 이사가서 17장 6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을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을 같으리라”라는 예언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 하였다.

이영자 총재의 말씀처럼 2016년 병신년은 전도의 해로 만들어야 하며, 전도를 지원하는 언론출판사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도의 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하였다.*

김중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3)

“참는 단계를 거쳐야”

이런 일을 봐도 참고, 저런 일을 봐도 참고, 어떤 일을 당해도 참고, 풀썩 풀썩 참고 참는 습관에 젖어지니 전연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얼굴에도 나타나려야 나타날 수가 없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니하고 경중 뛰어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참는 단계가 십여 년 이상 걸린 것이다.

사실은 자유율법 상 참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내려야 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완전히 이기는 단계지 감정이 이미 나가지고 참는 단계는 이미 넘어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싸움에서 참는 단계를 거치지 아

어떤 일을 당해도 입에다 재갈을 물고 참고 참았던 것이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내가 왜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죄인 괴수나 미망히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참고 넘어가니 입술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본부재단 12월 성적 11월에 이어 4지역 연속 1등

2016년 1월 5일 화요일 구역장회의에서는 본부재단의 2015년 12월 성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2015년 12월의 성적은 4지역이 11월에 이어 1등을 차지하였다. 흥경속 권사와 정말용 장로의 열성으로 말미암아 1등을 차지하였다. 3지역이 은희훈님의 힘에 의하여 2등을 차지하였고 2지역이 지역원들의 고된 지원에 힘입어 3등을 차지하였다.

발전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간사회의 특성이다. 그렇게 상호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올해는 시상에 따른 상금을 인상하여 좀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불하려고 한다”고 새해 제단 활성화 방안을 말하였다.

개인성적에서는 흥경속 권사가 1등을 차지하였고 은희훈님이 2등, 김인숙 집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시상 후 “2016년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단의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3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6구역
- 2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 3등: 26구역(구역장: 김갑용)
- *개인 1등: 흥경속 권사
- 2등: 은희훈님
- 3등: 김인숙 집사*

승리신문 발행 역사

초창기에 3종류 발행되던 것을 승리회보로 통합함



부산제단에서 발행한 <승리회보>

초창기에 발행된 <승리재단회보>

초창기에 발행된 <백합화>

칼라로 발행되는 최근승리신문

<승리신문>은 1985. 1. 18 창간되었다. 오늘까지 약 31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승리재단 초창기 1984년까지는 전도지를 제외한 홍보 간행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세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3년반씩 세 번의 기회 중 첫 번째 3년반 동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1985년 초부터 홍보 간행물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승리신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승리신문>의 전신(前身)이 되는 홍보물은 <백합화>와 <승리재단회보> 2종이다. 현재 신문사에서는 1985. 3.3 발

행된 <백합화>를 보관하고 있는데 창간호가 아니라 제18호이며, <승리재단회보>는 1985. 5.9자(제27호)와 1985. 7.21자(제30호)가 보관되어 있다. 이중 <승리재단회보> 1985. 5.9자(제27호)와 1985. 7.21자(제30호)를 비교하면 전자가 27호, 후자가 30호인 것으로 보아 월 2회 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승리재단회보>는 1984. 3월경에 처음 발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승리신문> 창간일을 1985. 1. 18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추후에 자세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후 1985. 11. 10자 <승리회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때는 판형이 A3로 커

는데 당시 부산제단에서 근무하던 박철수 승사에 의하면 “부산제단에서 <승리회보>를 1985년 2월 3일 창간한 후 매주 1회 발행하였는데 구세주께서 역곡 본부재단에서 승리회보를 발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어서 5회를 내고 승리회보 발행을 역곡으로 넘겼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구세주께서는 3종류로 발행되는 제단 홍보지를 1개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985년 3월 경에 통합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1985. 11. 10자 <승리회보>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때는 판형이 A3로 커

졌고, 면수는 4면이다. 그러다가 1988. 1. 10부터 <승리회보> 대판 4면이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90. 3.3. 문공부에서 <승리신문>이 격주간으로 발행 등록이 되었다. 등록번호 다-0029호. 그후 승리회보가 승리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된 것은 등록 후 7개월이 흐른 뒤 1990. 12. 20부터이다. <승리신문> 4면을 흑백판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2000. 5. 1일부터 1면과 4면은 칼라로 2면과 3면은 흑백으로 발행하였고, 2013. 11. 1일부터 4면 전체를 칼라로 발행하였으며, 2014. 1. 1.부터는 <승리신문> 8면과 4면 병행 발행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단뉴스

인사발령 부산제단 강옥순 승사



승리재단 신도회(회장 윤봉수)는 부산제단의 강옥순 권사를 승사로 발령하였다. 부산제단(김원

손 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15. 12. 23.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014. 12. 7자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이영돈 피디가 신분보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2015년말에 이르러서 급작스럽게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 있다. 현재 제단에서는 이의신청을 고려중이다.

특별전도팀 방문 신청하세요

새해부터는 본부재단 특별전도팀이 전국 각 제단을 최소 1년에 2회 순회할 예정이므로 각 제단에서는 연합에 배(1. 17) 때까지 원하는 날짜를 신청 바랍니다.*

서울남부지검 이영돈 피디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서울남부지검은 이영돈 피디 명예훼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